

충북학 누리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지역콘텐츠 K-POP에 주목하다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단양의 산수를 사랑한, 단릉 이윤영(李胤永)

전설의 고향, 충북

#청주_우암산

충북학연구소 소식

정삼철 충북학연구소 소장 취임

충북학누리

CONTENTS

01	여는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학의 역할과 기능 정삼철 충북학연구소 소장	02	05	충북학연구소 동정 2021년 사업 계획 충북학연구소 소식	14
02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지역콘텐츠 K-Pop에 주목하다 오수민 충북학연구소	03	06	충북 지역학 별거 이슈	16
03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단양의 산수를 사랑한, 단릉 이윤영(李胤永) 조영임 문학박사	06	07	충북학 사업 홍보 충북학 원고 모집 도민의견모집	18
04	전설의 고향, 충북 #청주 우암산	11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정삼철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오수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2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1.04.30.

01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학의 역할과 기능



글: 충북학연구소장 정삼철

최근에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제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 되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그로 인하여 현재 도시쇠퇴와 농촌지역 공동화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인구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경기침체 및 경제구조의 재구조화는 기능쇠퇴로 인한 쇠락과 축소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목표이자 과제가 되면서 쇠퇴하고 공동화되는 지역의 공간을 다시 살리고자 문화도시 선정지원과 도시 및 농촌 재생 뉴딜 등의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피지기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는 지역재생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 차별적 경쟁력과 한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지역소멸 위기와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역학에 주목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학은 지역의 역사문화 원형 유산과 콘텐츠의 발굴에만 집중하고, 학문적 영역쯤으로만 가볍게 다루어짐에 따라 핵심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지역소멸과 함께 향토역사문화도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거기에도 역사 문화가 배고픈 영역으로 전략하게 되면서 이것을 전공하거나 지켜 나가려는 사람들마저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국적도 뿌리도 알 수 없는 역사와 문화들이 판을 치고, 근본조차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지역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단순한 학문 영역으로서의 지역학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소멸 위기와 역사문화의 경시로 맥이 단절되고 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 현실 상황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지역학의 토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소멸과 함께 지역 주체의 자멸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지역학이 더 이상 외면 받지 않고 지역주민과 밀착되고 공공정책과 결합되어 실천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면 지역 향토역사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은 물론 활용 가치의 범위를 무궁무진하게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의적 의미에서 문화가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면, 협의적인 의미에서 지역학은 지역 주체인 주민들의 삶과 생활양식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 및 문화정책과 지역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내외적 환경변화 위기로 죽어가고 있으며, 소멸되고 점차 지워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금 인식하고 도시와 농촌 재생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상 영역임을 인지하고 지역학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학과 지역문화 정책이 결합하고 융합되어 지역진흥은 물론 온고지신을 통한 지역혁신 발전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원천자원으로 활용해 나가야만 한다. 지역위기 상황에서 충북학연구소의 존재 이유와 미래 발전과제도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충북지역의 지역학 연구에 보다 많은 도민주체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동력 확보와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충북학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글: 오수민(충북학연구소)

지역콘텐츠 K-pop에 주목하다

노래를 듣다가 어느 지역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떠나요~ 제주도~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이 노래가 들려오면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제주도 비행기 표를 끊고 싶어진다. 이처럼 지역을 소재로 한 노래는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지명을 소재로 한 우리나라의 대중 가요로는 <목포의 눈물(목포)>, <울고 넘는 박달재(제천)>, <돌아와요 부산항에(부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이 지역의 이미지 형성에 끼친 영향은 그 음악의 흥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지역을 소재로 한 노래가 크게 흥행한 사례로는 가수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를 들 수 있다. 대중들은 이 <여수 밤바다>가 지역 활성화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평가한다. 2016년 시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0대 시정성과 설문조사에서는 ‘여수 밤바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콘텐츠 선정’이 1위를 차지했다.(광주매일신문, 2016.12.27.) 상인들 역시 노래가 관광객 수를 늘렸다고 믿고 “여수를 먹여 살린 장범준 방문시 당일 모든 테이블 공짜”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다.(YTN, 2019.03.31.)

그렇다면 실질적 수치를 통해 확인해보면 어떨까. <여수 밤바다>는 2012년 발매된 곡으로 여수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육~칠백만 명을 맴돌던 주요관광지 방문객수가 2012년 천오백만 명에 달하고 그 이후로도 천만 명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수엑스포가 2012년에 개최하였지만 그 후로도 많은 관광객 수를 유지하는 것은 대중들의 생각과 같이 노래 <여수 밤바다>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수 총 방문 관광객 수(10년)



다른 사례로는 제주도를 소재로 한 노래 <제주도의 푸른밤>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해당 노래를 유명 k-pop 가수를 통해 리메이크해 제주 삼다수 마케팅에 활용했으며, 지역기념품샵에서는 <제주도의 푸른밤>을 담은 오르골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을 소재로 해서 인기몰이를 한 노래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이미지 형성에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충청북도에서 이런 지역소재 음악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낸 사례가 있다.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의해 탄생한 <산막이 옛길을 달리는 소녀>와 <연하구곡가 각시바위의 전설>이다. 각 두 곡은 k-pop 걸그룹 위키미키와 트로트가수 주현미가 불렀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충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함께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자 실시되었다. 괴산의 명소인 산막이 옛길과 댐 준공으로 인해 현재 수몰된 연하구곡의 전설을 토대로 음악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룹 위키미키의 <산막이 옛길을 달리는 소녀>는 신나는 템포로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산막이 옛길로 떠나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현미의 <연하구곡가 각시바위의 전설>은 수면 위로 마주하고 있는 신랑바위와 각시바위에 얽힌 전설을 토대로 하는 감성을 자극하는 곡이다. 트로트 가수와 아이돌그룹 두 방향으로 노래를 내면서 시의성과 대중성을 모두 노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노래가 발매된 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 음원성적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 대신 두 노래 모두 뮤직비디오를 냈기에 유튜브를 통해 그 조회수를 살펴보았다. <연하구곡가 각시바위의 전설>의 경우 2021년 4월 기준 조회수가 1.9천뷰에 달했고 <산막이 옛길을 달리는 소녀>는 조회수가 6만뷰를 넘었다. 언뜻 굉장한 조회수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인터넷, 특히 유튜브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를 겨냥한 <산막이 옛길을 달리는 소녀>의 뮤직비디오에는 228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p>아하 문빈 이목구비 내 인생보다 밝다 2개월 전 완전 여름곡인데 왜 11월에 나온거야ㅜㅜ 올해 여름에 제 가 발벗고 홍보하고 다닐게요</p>		<p>JHS 5개월 전 뮤비 출연자분들 의상이 여름인데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나왔네... 그것만 조금 아쉽네요 노래도 영상도 꽤 좋은데</p>
	<p>ny k 5개월 전 좋은 노래 홍보좀하자~</p>		<p>간지콩알최유정 5개월 전 진짜 이거 홍보좀 잘해주지... 이거 나온지 모르는 사람들 도 많던데 ㅜㅜ 노래진짜 좋은데.. 어쨌든 뮤비나와서 너무 좋다 ♡♡ 잘들용게용 😊😊</p>
	<p>연섭 5개월 전 여름곡인데...지금나온게 아쉽네...그래도 노래 뮤비 모두 좋네요 내년엔 역주행 각??</p>		<p>남주형 5개월 전(수정됨) 이 노래 진짜 좋은데 뮤비까지 나오다니 뮤비도 너무 잘 만들어졌네~이 노래 많이 알면 좋겠다 그리고 충주사는 아는형이 충청북도 괴산에서 태어났는데 그 형이 말해주 서 산막이옛길이 괴산에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안ㅋㅋㅋ</p>
	<p>간지 5개월 전(수정됨) 노래 꽤 괜찮는데 왜 이런 노래를 아쉽게 11월에 냈냐했는 데, 정식활동곡이 아니었녕..</p>		<p>남주형 5개월 전(수정됨) 이 노래 진짜 좋은데 뮤비까지 나오다니 뮤비도 너무 잘 만들어졌네~이 노래 많이 알면 좋겠다 그리고 충주사는 아는형이 충청북도 괴산에서 태어났는데 그 형이 말해주 서 산막이옛길이 괴산에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안ㅋㅋㅋ</p>

댓글을 살펴보면, 음악 자체에 대한 평가와 노래로 인한 산막이 옛길의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여름곡인데, 지금 나온 게 아쉽다.”, “나온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등 대체로 여름에 맞는 곡이 겨울에 나온 것과 홍보가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실제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주변인들에게 이 노래의 존재를 아느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이런 노래가 대체 언제 나왔냐는 반응을 보였다. 6만이라는 조회수가 아쉽게 쥐도 새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댓글에 달린 말 처럼 시기가 좋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혹 홍보가 부족했던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나마 홍보해본다.

지역을 소재로 만들어진 좋은 노래가 지역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고, 반대로 좋은 지역 노래를 만들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노래가 만들어지고 흥행하기를 기다리느니 직접 만들어서 활용해 보겠다는 것인데,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다른 시도에도 이와 같은 지역을 소재로 한 음악콘텐츠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공주에서는 2017년 “공주”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 현상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으나, 각 음원사이트에 발매되지는 않았다. 2020년 대구음악창작소에서 대구 지역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음악 공모전 “대구를 노래하다”가 있었고 수상작들이 음원으로도 발매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큰 성과를 낸 사례가 없는 것이다.

<여수 밤바다>와 <제주도의 푸른밤> 등의 성공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가수의 유명세와 낭만, 시기의 적절함 등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좋은 곡만으로는 레드오션을 넘어 스칼렛오션이 되어가는 음악시장에서 얼굴을 들이 내밀기조차 힘들어 것이다. 충북에는 음악콘텐츠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좋은 문화원형이 많다. 앞으로도 충분한 고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

올해에는 두 노래가 일명 ‘역주행’ 되어 괴산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하단의 QR 코드로 두 곡의 뮤직비디오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노래 모두 좋으니 한 번씩 들어봐 주시기 바란다.



연하구곡가: 각시바위의 전설 - 주현미



산막이 옛길을 달리는 소녀 - 위키미키



03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글: 조영임(문학박사)

단양의 산수를 사랑한, 단릉 이윤영(李胤永)

울곡, 백곡, 연암, 동악, 임호, 남당, 농암, 백암.

위에 열거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지역 산천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호(號)로 삼은 경우다. 울곡은 집안의 농장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 울곡리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고, 연암은 박지원이 은거했던 황해도 금천의 연암협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듯 지명을 자신의 호로 삼은 경우는 위에서 예로 든 외에도 매우 많은데 거개가 그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산자수명(山紫水明)의 고장으로 불렸던 단양을 사랑하여 이곳의 지명으로 자호(自號)한 문인이 있을까? 바로 이윤영이 그러하다. 단양의 산수를 얼마나 좋아하였으면, 구담에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지내며 단릉산인(丹陵山人), 단릉처사(丹陵處士)라 자호하였을까!

이윤영(李胤永, 1714~1759)은 조선후기의 문인이자 화가다. 이색의 14대손이다. 그는 노론의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과거를 포기하고 산수를 유람하며 은일자의 삶을 살았다. 그가 벼슬을 하지 않았기에 공식적인 문서에서 그의 행적을 찾을 수는 없다. 이규상이 엮은 「문원록(文苑錄)」에는 이윤영을 "교양이 있고 물욕이 적었으며 골동품 모으기를 좋아하였다. 그림을 잘 그리고 전각에도 능했다. 산수에 취미가 있어 고을살이하는 아버지를 따라 단양 관아로 가서 수석이 좋은 곳에 우화정(羽化亭)을 세웠다. 근 오십에 포의로 생을 마쳤는데, 죽음에 임하여 거리낌 없는 모양이 세속을 살다간 사람 같지 않았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윤영은 고동서화의 수장가로서 꽤나 명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년에 지은 수정루(水晶樓)에 수많은 고서화와 각종 골동품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손님을 접대할 주안상을 들여놓기가 버거울 정도였다고 한다. 평소 골동품을 나열해 놓고 감상하며 그 가운데 향을 사르고 앉아 있기를 좋아하였다고 하니, 고동서화가의 면모를 상상할 수 있을 듯하다. 그는 그림과 전각에도 능하여 절친이었던 문인화가 이인상(李麟祥)의 그림에 화제를 많이 쓰곤 하였다. 또 연암 박지원이 젊은 시절에 이윤영에게 주역을 배우고 종유하였으며, 연암의 처숙이자 스승인 이양천과도 친교가 두터웠다. 그가 종유한 인물은 오찬, 이우수, 김종수, 이병연, 남유용, 이인상, 김양행 등 당대의 우수한 학자들이었다.

이윤영이 단양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1751년 부친 이기중(李箕重)이 단양 부사로 부임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단양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한시 한편을 감상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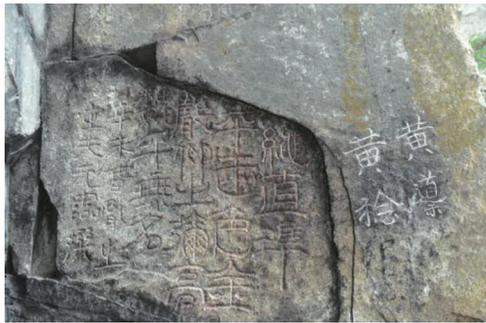
세상을 피하기보다 명성을 피함이 우선
산이 있으니 마땅히 정자가 있다네.
단양의 골짜기는 넓고도 깊숙한데
기암괴석들이 첩첩산중에 솟아 있네.
맑은 풍광 깊은 물에 잠겨 있고
빼어난 기운 푸른 하늘에 펼쳐있네.
은자가 바르고 길한 데 터를 정하고
은거한 곳이 절로 맑고 서늘하구나.
흰 구름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맹서하여
장차 붉은 글씨 써서 남겼네.

避世先避名
有山當有亭
丹壑曠而邃
奇石開雲屏
清光涵積水
秀氣插青冥
幽人卜貞吉
巖棲自清冷
永結白雲誓
且留丹篆銘

어찌 뜻을 같이 할 선비가 없으랴
함께 강가에서 문을 닫노라.
못을 파서 붉은 연꽃을 심고
누대를 세워 옛 경전을 쌓아두었네.
나가 놀 때는 사슴 멧돼지와 어울리고
음식을 마련할 때는 영지를 캐네.
맑은 강은 끝없이 흘러가는데
세상과 떨어진 이곳 저녁 산이 푸르구나.
『雲仙洞卜居, 以‘青山綠水有歸夢, 白石清泉聞此言’爲韻』 『丹陵遺稿』

豈無同志士
共掩臨水扃
鑿沼栽紅蕖
起樓貯古經
出游羣鹿豕
儲食採芝苓
清江去不極
隔世暮山青

위의 시는 단양의 운선동에 터를 정할 때 지은 것이다. 위의 시에서처럼 골짜기가 깊숙하고 기암괴석이 첩첩산중에 우뚝 솟아 있으며, 깊은 강물 속에 비친 맑은 산형(山形)이 꽤나 아름다운 곳이, 바로 단양이다. 이운영이 터를 정하기에 앞서 촌로에게 조언을 들으니 그가 말하기를, "단양은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도 큰 차이가 없다. 비록 땅이 척박하여 큰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세상에 난리가 났을 때 자식을 낳아 기를 만한 터전은 될 것이다."라고 하여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이때 터를 마련하는데 2,400냥이 들었다고 한다. 이운영은 1752년 구담에 창하정(蒼霞亭)을 세우고 이듬해는 사인암에 서벽정(棲碧亭)을 세웠다. 그리고 이곳을 두루 소요하면서 암벽 사이사이에 전서, 예서체를 새겨 놓았다. "繩直準平, 玉色金聲, 仰之彌高, 魏乎無名"은 그의 벗 김종수, 이인상과 함께 짓고 이인상이 글씨를 쓴 것이다. 이운영의 아우 이운영이 바둑을 좋아하여 사인암의 암석에 바둑판을 새겨놓았는데, 역시 지금도 볼 수 있다. 이운영은 같이 어울렸던 김종수, 윤심형 등에게도 단양에 터전을 마련하여 살 것을 권하였다. 이인상도 구담의 북쪽에 정사를 짓고 누각의 이름을 '다백운(多白雲)'이라 하고는 처자를 데리고 돌아가 은거하려고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인상이 몇 해 뒤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끝내 단양 은거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운영은 그곳에 연못을 만들고 붉은 연꽃을 심어놓았으며 누대를 세워 장서를 쌓아두었다. 이운영이 젊어서 서지(西池) 가에 정자를 짓고 연꽃을 감상하면서 시를 짓는 시회를 결성한 바 있었는데, 아마 단양에서도 벗들과 함께 그와 같은 정취를 느끼고 싶어 유사하게 꾸며 놓은 듯하다. 회화에 능했던 이운영은 연(蓮)을 소재로 한 <西池白蓮圖>, <蓮花圖> 등을 남겼다.



출처: 돌에 새긴 단양의 마음, 단양문화보존회

연꽃이 진흙에서 나왔지만 물들지 않는 그 고결함을 사모한 작가 정신을 읽을 수 있다. 끝없이 흘러가는 맑은 강과 저물녘 검푸른 산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은일자락하는 시인의 모습이 매우 탈속적으로 보인다.

역대의 문인 중에 단양의 산수를 좋아한 이들이 꽤나 있었다. 이황, 황준량, 허목, 김창협, 권선, 김원행, 김이안, 정약용 등 허다한 시인들이 단양의 산수를 노래한 시문을 남겼다. 허목은 「단양산수기」에 “단양은 호서의 산수 가운데 은밀한 곳이다. 강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물이 서리어 감돌며 굽이졌다 곧아졌다 하며, 바위 벼랑 사이에 있는 돌다리야 모래사장은 모두 깨끗하고 고와서 사랑스러웠다.”라 하였으며, 정약용은 “단양이라 그 산수 너무나도 절묘하여, 연지 곧지 단장한 듯 온 고을이 환하였네.”라는 시구를 남겼다. 그렇지만 이운영이 단양을 사랑한 것에는 미치지 못할 듯하다. 이운영은 구담, 옥순, 강선대, 도담, 석문, 사인암 등 단양 구석구석을 유람한 뒤 「龜潭記」, 「降仙臺記」, 「長淮灘記」, 「玉笋峰記」, 「雲潭書樓記」, 「龜潭記評」, 「島潭記」, 「舍人巖記」 등 무려 18편의 기문에 단양 산수의 아름다움을 유려한 필체로 형상화하였다. 단양에서 노닌 지 오랜 동안 이 모든 산수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발로 다니면서 기록한 것이다. 이 기문들은 『山史』라는 제명하에 묶여 있다. 이운영의 사후 이의호(李義浩)가

쓴 애사에 “이윤영이 단양일대를 살살이 탐방하며 물이나 돌에 일일이 품제(品題)를 남겼다.”고 하였는 바, 당시 문사들 사이에서도 단양에 대한 이윤영의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구담기」의 일부를 인용해 본다.

“1751년 3월 10일. 단양군 하진에서 뱃길로 십리를 가서 석주 여울을 지나니, 강산의 경치가 비로소 뛰어났다. 강의 남쪽과 북쪽으로 흰 빛을 띤 돌산이 죽 늘어서 있는데 마치 소나무 삼나무 사이로 점점이 잔설들이 흩어져 내리는 듯하였고, 또 흰 병풍 사이로 비취빛의 깃털을 어지러이 심어놓은 것 같았다. 험준하고 가파른 바위들이 합쳤다가는 다시 흩어져 산들이 모습을 바꾸며 뱃전으로 번갈아 출몰하는 것은 남쪽의 산이고, 천만번 아로새겨 뾰족이 다듬어진 산과 웅하니 깊은 계곡이 마치 홀을 모은 듯, 창을 묶어 놓은 듯 한 것은 북쪽의 산이었다. 좌우가 서로 이어져 있어 한눈 팔 겨를이 없는데, 옆 사람이 구봉이 나타났다고 알려주었다. 멀리 한참 바라보니 채색구름이 물위로 길게 늘어서 있고, 현란하게 빛나는 기운이 떠오르고 있는데 자세히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산임을 알았다. 강선대에 올라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은 정신이 구담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윤영이 부친을 따라 단양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구담이다. 구담은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에 있는 것으로 기암괴석의 형상이 마치 거북 같다고 하여 구봉(龜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옥순봉과 함께 최고의 절경으로 꼽힌다. 『여지도서』에는 “잇달아 겹쳐 있는 산봉우리와 까마득한 절벽이 좌우에 중첩되어 있고 강물이 그 사이를 흐른다. 남쪽 낭떠러지는 푸른 빛깔로 뒤덮인 절벽인데 물속에 꽂혀 있다. 우러러보면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으니 기묘하고 웅장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구담의 경치가 이윤영의 붓끝을 통해 한층 더 섬세하게 혹은 신비롭게 묘사되었다. 마치 한 폭의 세밀화를 그리듯, 혹은 감상하듯 표현하였다. 이윤영의 산수유기의 특징은 이 같은 회화적 묘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뱃전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구담의 웅장한 경치에 넋이 나간 이윤영의 모습이 선연하다. 구담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다음 유람지인 강선대에 올랐어도 구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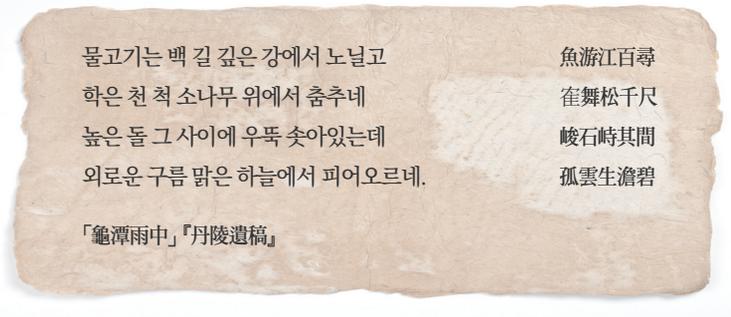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구담봉 일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목록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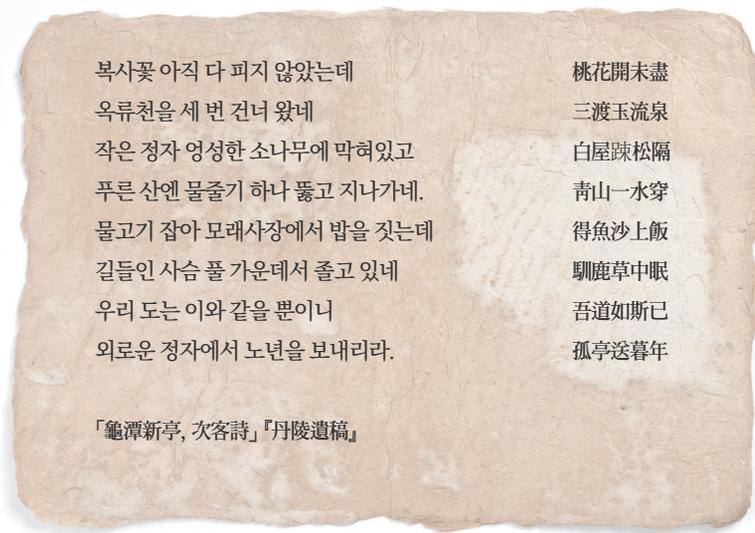
〈구담봉〉
출처: 충청북도문화재대관

이번에는 구담을 소재로 한 시를 감상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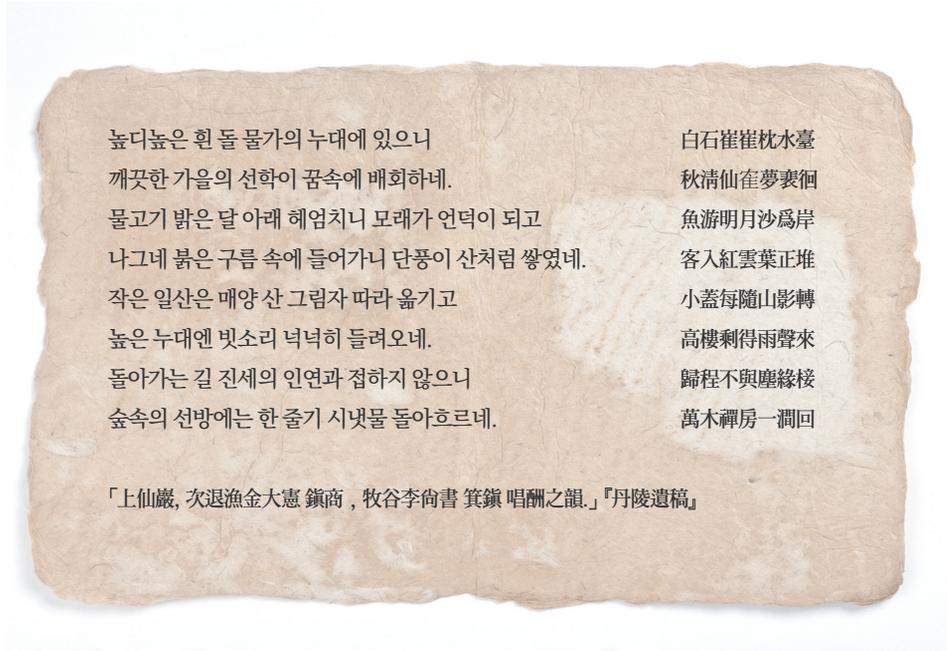
비오는 구담의 풍경을 보고 쓴 시다. 구담은 첩첩 산봉우리와 낭떠러지 절벽이 있고, 유유히 강물이 흐르는 곳이다. 백 길 깊은 강에 물고기가 노닐고, 천 척 소나무 위에 학이 춤춘다는 이 구절은 중용에 나오는 '연비어약(鸞飛魚躍)'의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하늘에 솔개가 날고 연못에 물고기가 뛰어난다는 뜻으로 모습은 다르지만 자연의 이치는 다르지 않다는 것과 천지의 도가 밝게 드러나 있음을 함유한 표현이다. 구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 강물, 학, 소나무, 높이 솟은 돌, 구름 등과 같은 평이한 사물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가 실현되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기괴하고 난잡한 표현이 전혀 없이 매우 평이한 시어들로 짜여 있고, 시의 풍격은 평담하다. 이렇듯 평담한 시풍이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평소 소박하고 탈속한 시인의 성품에서 기인한 것이다.

역시 구담을 소재로 한 시를 소개해 본다.



구담에 새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시다. 정자 앞에 소나무 서너 그루 있고, 산 속에 냇물이 한 줄기 흐른다.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모래사장에서 요리하여 한 끼 식사를 하고 들짐승과도 어울려 지낸다. 시인은 유자의 도(道)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물아(物我)를 잊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세간에서 이운영을 두고 '물욕이 없고, 성품이 맑다'고 평하는데, 위의 시에서도 맑고 고아한 시인의 성품을 읽어낼 수 있다.

다음은 상선암을 소재로 한 시를 감상해 보기로 한다.



상선암은 선암계곡을 따라 하선암, 중선암을 지나 가장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역시 단양팔경에 속하는 명승지이다. 낭떠러지 절벽과 유유히 강물이 흐르는 구담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게 희고 큰 너럭바위가 파노라마처럼 길게 펼쳐져 있고 크고 작은 바윗돌 사이로 냇물이 팔팔 흐르며 좌우에는 푸른 숲이 울창한 곳이 상선암이다. 상선암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면 작은 폭포를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절경이다. 위의 시에서 시인은, 물가의 누대에 있는 선학, 모래 언덕에 비친 밝은 달, 산처럼 쌓인 붉은 단풍, 누대에서 들리는 빗소리를 통해 상선암의 가을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구담을 노래한 시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학이 위의 시에서도 보인다. 이윤영은 단양의 산수야말로 신선이 노닐만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하였던 듯하다. 속세와 절연되어 있어 초연히 자신의 삶을 가꿀 만한 그런 곳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후인들은 세속을 초월하여 자연 속에서 살다간 이윤영을 두고 '청사(淸士)', '아사(雅士)', '시은자(市隱者)', '방외(方外)의 고사(高士)'라고 일컫기도 하였다. 부귀영화를 꿈꾸지 않고 은일자락하였던 시인, 골동품을 애호하고 서화를 즐겼던 고아한 풍격의 소유자, 단양의 산수를 몹시 좋아하여 단릉이라 자호하였던 이윤영! 산자수명의 아름다운 고을에 맑고 고상한 이윤영의 자취가 깊이 남아 있어 단양의 문화가 더욱 풍성해졌다.

04 전설의 고향, 충북

청주, 우암산 전설

전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로 주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며, 지역에 실존하거나 실존했다고 믿어지는 증거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집니다. 1986년 간행된 『전설지』는 충북지역의 전설 620편을 실고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충북”은 해당 자료집에 실린 충북의 전설을 만화로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전설은 ‘우암산 전설’로 청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2화 청주 우암사 마침

05 충북학연구소 동정

2021년 충북학 사업 계획

연구사업



『충북학』 제22집

▶ 『충북학』 제23집 발간

『충북학』은 매년 발간하는 충북학 연구지로, 순수학술지 겸 저널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재 내용은 '충북' 관련 역사문화를 포함한 지역에서 만나는 모든 이슈를 포괄합니다. 충북학 연구성과의 정리와 확산, 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현 2021년 총 2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올해는 제23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충북학연구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충북학 미래 기획 사업(신규)

충북이 지향해야 할 미래 좌표 설정과 미래 가치 도출을 목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분야별 지역 오피니언 리더 좌담회와 미래 기획 총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충북 문화상징 콘텐츠 사업(신규)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충북의 대표 문화원형을 분야로 선정(충북상징, 지리·자연상징, 역사상징, 사회·생활상징, 종교·신앙상징, 문학·예술상징 등)하고 연차별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차 포럼〉

▶ 충북학포럼 개최

충북학포럼은 매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6월, 11월 두 차례 개최 예정입니다.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충북학 관련 의제 발굴 및 담론 생산을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사업

▶ 충북학 아카이브 자료 업데이트

충북 지역의 산재된 자료를 취합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물 4,710건, 유물 424건, 고지도 29건이 업데이트 되어 있으며 충북의 고신문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충북학아카이브 <http://archive.vrculture.com/>

문화교육사업

▶ 〈충북학누리〉 발간

〈충북학누리〉는 2020년 창간호를 발간한 충북학연구소 웹진입니다. 충북도민과 충북학 유관기관에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며 계간으로 연 4회 발간하고자 합니다.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충북학이시습(忠北學而時習) 디지털콘텐츠 개발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는 충북의 역사·문화·환경·인물 등을 도민에게 소개하는 강의로 2013년부터 매년 오프라인으로 개최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올해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접근성이 좋으며 지속성을 갖춘 매체인 디지털 교양강좌 콘텐츠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충북학연구소 소식

▶ 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충북학연구소는 2월 26일(금) 오후 2시에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 충북학 자문위원으로는 강태재(충북시민재단), 길경택(충북향토사연구회), 김승환(충북문화재단), 유영선(동양일보), 박상일(청주대학교), 이동원(충북민예총), 임승빈(청주대 명예교수), 조성화(열린기획) 등이 위촉되었으며, 이날 회의에는 자문위원과 박해운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이 참석했습니다.

▶ 『충북학』 제23집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충북학연구소는 3월 19일(금) 오후 2시에 충북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충북학』 제23집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강신욱(뉴시스)과 김은숙(충북작가회의), 어강석(충북대학교), 최명환(세명대학교) 및 김양식 충북학연구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북학』 제23집 특집 편성 주제 선정, 목차·편집방향·개선방안 논의, 원고심사 진행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정삼철 충북학연구소 소장 취임

2021년 4월 1일 충북연구원 정삼철 성장동력연구부장이 충북학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학연구소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삼철 소장은 충청북도의 인문학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충청북도의 미래를 지역학의 차원에서 그려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충북학』 제23집 편집위원회의

06 충북 지역학 별거 있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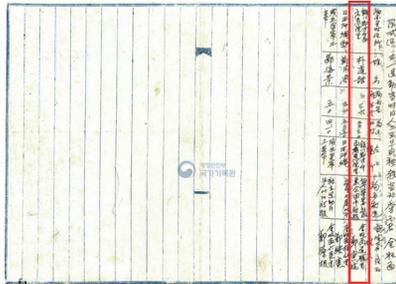
진천

박도철 열사 102년 만에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1919년 4월 3일 진천군 광혜원 일원에서 벌어진 항일 시위에서 일본 헌병에게 희생당한 박도철(朴道喆) 열사가 3·1절 기념식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이번 추서는 유족들과 진천향토사연구회 등이 2019년 2월 13일 포상신청을 하고 2년 만의 결실이다.

당시 광혜원면 만세시위에는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박열사와 그의 모친을 포함하여 7명이 숨졌으며, 수십 명이 검거되어 고문을 당하는 등, 충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박 열사의 포상이 늦어진 것은 열사의 이름이 박치선, 유치선 등으로 잘못 전해져 심사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3·1만세운동 피살자 명부 기록(국가기록원)



옥천

옥천향토사연구회 구읍 마을사 발간

옥천향토사연구회(회장 전순표)가 20년도 충청북도 지역마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옥천군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담긴 『옥천 구읍 마을사』를 발간했다. 『옥천 구읍 마을사』는 옥천 구읍의 마을 문정, 축향, 상계, 하계, 교동, 동안리 6개의 향토사를 조사·연구한 것이다. 각 구읍의 역사, 문화유적, 민속신앙, 인물, 지역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담아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성

『음성의 향토사』 발간 예정

음성군과 음성향토사연구회에서 음성의 민족문화 조사·연구보고서 『음성의 향토사』를 발간할 계획이다. 해당 도서에는 충북학연구소 최병철, 충북대학교 김현길, 음성향토사연구회 회장 김영규, 음성향토사연구회 사무국장 이상철, 감곡향토문화연구회장 김근태가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음성 향토사 연구의 성과와 흐름을 살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의 말미에는 음성군 관련 연구도서의 목록을 실고 있다.

충주

충주 지역전설 동화책 발간

충주시 평생학습동아리 ‘알리고 싶은 충주 이야기’에서 충주 지역 설화를 담은 동화책을 발간했다. ‘알리고 싶은 충주 이야기’ 동아리는 지역 아동들에게 애향심과 소속감을 길러주기 위해 동화책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발간한 동화책은 『수주팔봉 세 친구 이야기』, 『수달아 또 올게』로 2종이다. 충주시 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에서 “수주팔봉 세친구이야기”와 “수달아, 또 올게~” 두 동화의 구연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영상 내용은 동화책의 구연과 충주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주

동네기록관 아카이빙북 발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2020년 선정된 동네기록관 10곳의 기록이 담긴 『동네 기록관 아카이빙 북』을 발간했다.

“동네기록관”이란 ‘동네 아카이빙과 주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장으로 마을의 이야기와 주민의 기억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기록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의미한다.

『동네기록관 아카이빙 북』은 ‘마을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다’, ‘마을살이의 긍지를 높이다’, ‘기록공동체를 만들다’의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문화 창의도시]의 비전을 담은 『동네기록관 아카이빙 북』은 청주문화창의도시 홈페이지 (<https://www.cjculture42.org/index.php>)에서 웹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출처: 친천 박도철 순국열사 102년 만에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충청투데이
 조선 개국부터 3·1운동까지 옥천 향토사 한눈에, 충청매일
 충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청주 문화도시 홈페이지

2021 충북학 제23집 원고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 매년 '충북학'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북학 제23집에 간행할 원고를 받고 있으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게재가
가능하나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모집 정보 모집분야 | 충북관련 연구논문 및 비논문 원고 모집

모집 대상 연구자,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분야	분량
연구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연구논단(논문과 저널의 중간수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저널(문화초점, 인물탐구, 자료소개, 서평 등)	

모집 일정 원고마감 | 2021년 10월 22일(금)

논문심사 | 10월 26일 ~ 29일

결과통보 | 2021년 11월 8일(월)

발간시기 | 2021년 12월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osm9677@cri.re.kr

문의 | 043) 220-1161~2

원고모집

3.31.~10.22.

심사

10.26.~29.

심사결과통보

11.8.

발간 및 발송

12.15.

* 자세한 사항은 충북학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충북학누리> 구독하고 의견을 보내 주세요!

“ 충북학연구소에서 <충북학누리> 웹진을 구독하여 주시는
분들께 짧은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

의견 1 <충북학누리>의 리뷰

의견 2 <충북학누리>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점

2~4 줄로 짧게 보내주세요.

예) 옛날, 음성에 호랑이가 많았다고 하는데,
호랑이와 관련된 충북의 설화를 소개해줬으면 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충북학누리> 다음호에 수록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5월 20일 까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osm9677@cri.re.kr

*당첨여부는 6월 1일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분들께는 보내주신 메일로 다시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2

홈페이지 <http://csi.cri.re.kr>